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9, 야고보서 1:22-27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9회차 야고보서 1:22-27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27절까지의 두 번째 주요 단위의 세 번째 하위 단위입니다.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야고보서 1장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서곡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는 이 책의 거의 모든 주요 주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한 다음 그 내용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는 2장 내의 틀 내에서 이러한 주요 주제를 제시합니다. 1:2부터 15까지의 틀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시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1장 16절부터 27절까지에서 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한 속임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25절에 이르면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일과 관련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은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다른 요소들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26절부터 27절까지에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말씀에 대해 그 자체로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속임수를 피하고 지식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이는 여기 주변 단락에서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요구 사항을 명명했으며, 1장에 있는 많은 하위 단위나 단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는 권고로 시작하여 이를 입증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권고는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너희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이제 그가 이 권고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권면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대조를 통해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상관 대조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분사구로 수정됩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paralogizomai입니다. 그것은 16절에서 사용했던 속임과는 다른 단어인 플라나오(planao)입니다. 그리고 그는 26절의 다음 문단에서 속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이 권고를 입증합니다. 듣기만 하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듣고 행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듣기만 하는 자들의 실증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물론 여기에서 비교가 되느니라 그는 자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 속의 자연스러운 얼굴,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그 비교를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떠나가서 즉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즉 말씀을 행하는 사람,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입증합니다. 듣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여기서 교차에 의해 강화된 실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권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실증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관찰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래 얼굴은 거울로 보이나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인내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니라 그의 연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BBA,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교차점은 물론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교차점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여기서 긍정적인 것,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고를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고 끝냅니다. 이제 다시, 속임수의 개념, 즉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paralogizomai가 문단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6절에서도 다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조, 즉 부정적인 결과는 19절의 앞 문단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속임수에는 자신의 구원과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가 2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21절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지만, 문맥상 속임수는 자신의 구원과 구원에 필요한 것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가 2장 14절에서 말할 내용을 예상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내 형제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는 21절의 끝부분과 대조를 보게 됩니다. 물론 RSV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그리스어로 가벼운 접속사인 da이지만 RSV는 이것을 but로 번역하여 여기 22절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은 이전 자료에서 그가 말한 내용과 실제로 대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RSV가 취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 대조가 있는 경우에는 21절을 잘못 읽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조와 19절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놔두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단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고 나서 독자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아마도 필요한 유일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거나 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받는 일을 빨리 듣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오해를 여기서 대조를 통해 바로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들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18절과 21절)이 포함되며, 피상적이고 신조적으로 동의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신조의 확증, 즉 신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과 신조를 만들고 신이 하나라는 신조의 진술을 확증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신조적 동의를 주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되되, 특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를 바꾸거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2:14부터 17까지 이 지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이에테스(poietes)이지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일하다, 행하다, 일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선지자가 무엇이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여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여기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를 바꾸거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구조는 특히 21절과 22절 이하의 관계와 특히 25절의 관계이지만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니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구절의 구조는 그가 현재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이 최종적,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행하는 이 사업을 자유의 법칙, 지금 자유롭게 하는 율법, 지금 구원하는 율법, 즉 이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끝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야고보는 1:12에서 이미 사용한 것처럼 마지막 때 또는 종말론적 구원을 언급하기 위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511년에도 같은 말을 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는 굳건한 자를 복되다 하노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뜻을 보았거니와 주님,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욥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미래의 종말론적 종말 구원의 축복을 언급하기 위해 일관되게 축복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현재의 구원, 즉 현재의 삶에서 자유, 해방, 악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다가올 삶을 향한 축복도 포함한다고 지적합니다. .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구원, 현재와 미래는 모두 행위를 통해 매개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행동을 통해 중재되는 행동의 성찬적 특성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23절부터 25절까지의 거울에 관한 비유로 입증됩니다.

이 구절을 비유인지 우화인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그 구별이나 차이를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에는 신약성서에 사용된 비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도

구약성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의 양의 비유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비유입니다. 세부 사항이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하나의 주요 요점이 있으며 그 자체의 영적 대응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비유에는 하나의 주요 요점이 있으며, 세부 사항에는 일반적으로 그 하나의 주요 요점을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영적인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의 비유와 관련하여 우리가 익숙한 관점에서 우화적인 측면을 실제로 기대한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정한 우화적 요소를 지닌 비유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의 특정 세부 사항은 우리 삶이나 거울을 보고 떠나거나 잊어버리거나 떠나서 행동하는 이 사람의 삶이나 거울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특정 현실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요점은 이것이다: 거울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얼굴을 보고, 교정될 수 있는 면이나 다른 결점을 보고, 단지 아무 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무엇이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애초에 왜 거울을 들여다보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영적인 얼굴, 즉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잠재력을 기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이 문맥에서는 빠르게 훑어보는 것과 관련이 있음), 단순히 법을 들여다보는 것 이상을 수행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경우 여기서 단어는 parakupto입니다. 이는 실제로 구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로 숙이고, 구부리고, 열중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그들의 성격의 본질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으로 무엇을 허용합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행동 전체를 결정하는 것을 본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텔레오스를 사용하는지 다시 한 번 알면서 책 전체에 걸쳐 완벽하다는 점에서 완벽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시편 19편 7절을 반복하고 심지어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고보서에서 매우 두드러진 지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은 시편 19편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업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는 무엇보다도 자유 즉 자유,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 포함됩니다.

이제 2장 후반부 12절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 번 율법이 완전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여기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으로서 율법을 말합니다.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는 거기서 말하며, 물론 이것은 또한 8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법이 자유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법이 해방시키고, 법이 해방하고, 법이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12절과 13절에 따르면 그것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2장 12절의 자유의 법칙은 그가 말하는 것, 즉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율법에 따르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그가 2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왕의 율법과 자유의 율법에 관하여 말한 것에 비추어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법이 자유의 법, 해방하는 법, 구원하는 법, 법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법이 구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는 복음으로 해석되고 성취되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8절에서 그는 왕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왕의 법, 즉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 사랑의 명령으로 재해석되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취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둬냄을 낳고, 참된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실제로 해방시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명령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거나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에게 전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리사욕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126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물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참된 종교와 헛된 종교 사이의 대조에 따라 구조화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종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속임 또는 마음을 속이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여기서도 속임을 의미하는 세 번째 헬라어 아파타오(apatao)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되다. 즉,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헛되다, 공허하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물론 그 개념을 소개합니다. 사실 그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미 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혀의 사용에 대한 개념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소개하고 있으며 26절 자체가 그 개념을 소개합니다. 특히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실제로 재갈과 굴레 등의 모든 일을 혀에 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참 종교와 대조되는데, 물론 여기서 참 종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아의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환난과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자기기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7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것 중 하나인 16절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동기에 관한 속임(16절)에서 기만의 첫 번째 표현인 16절, 하나님의 동기에 관한 속임(16절)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속임으로 나아갑니다. , 하나님의 구원 방법(22절), 하나님의 승인에 관한 미혹(미혹)에 이르기까지(이제 26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과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여기, 제임스가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 실제로는 트레스코스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제임스는 보편적인 종교적 본성, 즉 모든 인간의 종교적 의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모든 인간 사회에,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속주의조차도 종교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세속주의자들은 인류의 종교적 충동과 종교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의 종교적 성격과 종교적 의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종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종교 행위의 수행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충동이며, 이것이 실제로 종교 행위의 수행인 트레스코스(threskos)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종류의 종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공허하거나 헛되다는 사실, 즉 하나님에 관한 한 쓸모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의 종교는 하나님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언어로 제의 행위를 강조하고 제의적인 종류의 언어인 *threskes*, 종교적, *threskeia*, 종교, 카타로스, 순수함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종의 제의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아미안토스(*amiantos*).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희생의 필요성에 관해 구약의 제사 체계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가 얼마나 편재되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제의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여기서 실제로 제의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종교는 제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즉 비공식적, 비공식적, 비공식적 의식 행위 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또한 사실이고, 그건 그렇고, 제임스가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어쨌든 분명히 사실인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여기서 의식 자체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말했듯이 이 단어들은 종종 의식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는 실제로 의식에 반대하는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주고, 행동, 시, 그것은 그들에게 행동적인 내용과 전례적인 종류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는 의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그는 참 종교의 본질이 의식이나 종교적, 경건한 활동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특히 자비의 행위, 즉 일종의 굴레로 이해되는 행동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미워하는 관계와 화를 내는

관계의 더러움을 거부하는 혀, 그것은 부적절한 말로 표현되고 부정적인 것이며 긍정적인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22절에서 말한 것과 실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서도 반드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기독교 모임, 기독교 예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는 그곳에서 추구하는 예배 자체와 모순되는 일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의 도가니에서 행하는 모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도가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구절에 따르면, 여기서 참된 종교는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했듯이 재갈을 물리는 혀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3장과 4장에도 도달할 때 이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3장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말의 입, 말의 입에서 혀를 재갈까지 조절하는 것은 말의 몸 전체를 굴레로 묶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 종교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일성과 전체성, 혼합이나 합금의 부족,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에 대한 James의 반복되는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제의의 순수성과 제의의 흠 없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암시하며, 실제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사업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음으로써 통일성과 전체성을 특징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해야 합니다. 존재로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처럼, 통일성과 전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불순한 것,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과 대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의나 종교적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의적 언어가 사용됩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의 부적절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을 무시하는 의식의 올바름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참된 종교의 세 번째 요소, 즉 신부의 혀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는 것에도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방문이라는 단어는 그들을 돕고, 돕고, 돌보기 위해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방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거나 구원할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하시는 것처럼, 물론 이는 실제로 그의 백성을 향한 야훼의 언약적 행동을 포함하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한 언약적 의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품을 받아들이거나 육성하고,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과부와 고아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과부와 고아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도 포함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일반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지위로부터 암시되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그분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는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없으며, 성경에 따르면 창조의 가장 높은 질서인 인간 창조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적극적이고 사랑의 보살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모든 인간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보살핌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발전시킨 것처럼 여기서 참 종교의 이 사업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콧머가 사용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아스필로스(Aspilo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니의 요소도 주목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욕주의나 도피주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이 구절은 확실히 종교는 사람이 고독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유명한 진술과 반대됩니다. 여기서 세상은 악에 대한 성향과 하나님에 대한 성향이라는 의미로 야고보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사물에 집착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을 포함합니다.

이것의 안전, 이 현재 세계에서 안전을 찾거나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힌트조차 남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야고보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선 안에는 전적으로 악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악과 선을 동시에 포용하는, 그렇게 분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얼룩진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종교,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그에 반대되는 약속, 즉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반대되는 약속을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도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며,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포함하는 도덕적 책임의 틀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 자기 자신, 특히 세상, 특히 세상의 궁핍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왕국 대 현 시대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촉구합니다. 좋아요, 글썄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야고보서의 이 서곡인 1장의 결론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끈다.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는 데 실제로 40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곳은 잠시 쉬고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므로 야고보서 2장과 함께 다음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9회차 야고보서 1:22-27입니다.